

더욱 악화시켜 하지절단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급속히 진전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들 환자에서는 작은 족부 감염증도 응급수술에 의한 배농 및 괴사조직 절제, 전신적 항생제 투여 등 적극적인 치료가 요한다. 일단 감염증이 치료된 후 동맥 폐색증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요한다.

최근 비침습적 혈관 검사의 발달로 인해 동맥 폐색 유무는 동맥 조영술 없이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동맥 수술을 요하는 환자에서는 조영제를 이용한 동맥 조여술 혹은 MR동맥 조영술을 이용해 영상적 진단을 요한다.

동맥 우회로 수술

당뇨병 환자에서의 말초동맥 폐색증의 치료 성적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과거에 비해 하지절단의 빈도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그 이유로는 동맥 우회로 수술의 시행 빈도 특히 족부동맥을 이용한 동맥 우회로술의 빈도가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는 점이다. 많은 당뇨병 환자에서 하지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은 당뇨병 환자에서 하퇴부의 경골 동맥과 비골동맥에 폐색성 병변의 침범은 빈번하지만 족부동맥 특히 족배동맥이 개존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같은 소견을 근거로 족배동맥 우회로술과 같은 아주 말초 동맥을 이용한 동맥우회로술이 시행되므로 하지절단을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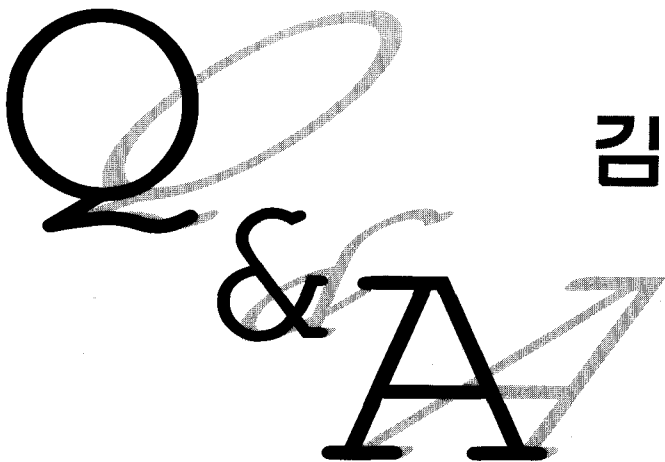
이같은 말초동맥 우회로술에서는 인조혈관을 이용한 경우 수술의 성적이 좋지 않으므로 복재정맥 혹은 상지 정맥 등 자가정맥을 이용한 동맥 우회로술이 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수술 후 Duplex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이식편 개존 감



시를 함으로 장기 개존율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예외는 당뇨병에 의한 말기 신부전증환자에서는 동맥 우회로술을 시행하더라도 수술 외적인 다른 원인에 의해 하지 절단율이 여전히 높게 보고되고 있다. 최근 족부궤양의 치료 목적으로 성장인자 등을 이용한 공소적 궤양치료 방법들이 이용되기도 하지만 이같은 국소적 치료 방법은 일차적으로 감염증과 허혈증이 교정된 후 시행할 수 있는 보조적 치료 방법임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모든 당뇨병 환자에서는 말초동맥 폐색증에 관한 주의와 족부관리에 관한 환자 교육을 요하며 주기적인 혈관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는 병의 특성상 세균 감염증이 잘 생길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방어력이 약화된 상태이므로 심한 허혈증이나 감염증이 나타나기 전에 동맥 재건술을 시행하는 것이 지체 절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당뇨병 전문의, 혈관외과, 성형외과, 전문간호사 등 여러 분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혈관질환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서 치료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



김순호 과장님께 물어보세요

Q 1주일 전 당뇨병을 진단 받은 43세 남자입니다. 좀 비만한 편이어서 키가 168cm인데 몸무게는 83kg입니다. 당뇨병은 완치되지 않는 병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이 깜깜했는데 의사이야기로는 제가 체중을 줄이면 당뇨병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당뇨병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요?

A 우선 선생님은 현재 제 2형 당뇨병 즉 성인 당뇨병 이 신데요 당뇨병이 발생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바로 비만입니다. 61kg정도가 표준체중인데 22kg과다 이시고 이 22kg은 모두 지방덩어리랍니다. 이 22kg의 넘쳐나는 지방이 인슐린의 힘을 무력화시켜서 당뇨병을 발생시키고 있죠.

따라서 적절한 다이어트와 운동을 통해 당뇨병의 원인제공자인 과다한 지방이 제거되고 나면 당뇨병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즉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정상혈당

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의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우선 비만증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나요? 비만증은 실제로는 암보다도 더 치료가 어렵다는 사실을? 일시적으로 체중을 줄이는데는 성공할 지 몰라도 계속 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의지력과 인내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율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희박해집니다.

저도 환자를 진료하면서 막 당뇨병을 진단 받은 비만한 환자분들에게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통해 체중을 줄이면 당뇨병이 좋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죠.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불과 2주전에 제 환자 한 분은 6개월만에 10kg감량에 성공하셔서 지금은 약을 복용하지 않고서도 식후 혈당을 140mg/dl이하로 유지하고 계시니까요.